

북한 정치담론의 의사소통 구조와 전략

: 정치언어에 대한 문화정치적 접근

전호관

1. 북한연구의 한계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체제 논리와 제도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내용적으로도 정치적 이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¹⁾ 북한연구는 양적으로 적지는 않지만 대부분 분단상황에 대한 현실인식보다 정부의 정책을 해설하고 기술하거나 추상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말까지 이루어진 북한연구물의 85.5%가 기술적 해설이나 시사적 설명에 속하고 있다.²⁾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연구에서 이데올로기적 재단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려는 지향성이 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과 분석 시각에서 질적인 도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연구의 담보 상태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먼저 북한연구는 체제대립에 의해 과잉 규정되어 있다. 남한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고하는 절대적 한계를 설정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항상 생각이 '건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를 요구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과 북

1) 양성철, “학문내적 통일 논의 총점검 및 새 이론 방향 구상”,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9), 191쪽.

2) 구본태, “북한연구를 위한 접근론 서설”, 『북한학보』 제5집(1981), 140쪽.

사이의 관계를 동지와 적의 논리, 삶과 죽음의 논리로 치환하여 단순화한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부과하는 단순 논리는 남과 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배제하여 각 사회가 가지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추상화한다.³⁾

둘째로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자료는 사회의 실상을 담기보다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정보를 생산하며, 이 부족한 자료조차 남한에서 극히 소수에게만 열람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연구는 대부분 공식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북한 소설이나 영화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자료의 제약성과 미공개 상황은 북한사회에 대한 단순한 이해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지극히 협소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연구의 지체는 연구의 관점 혹은 분석의 시각이 갖는 제약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인식이 강한 이데올로기적 제약에 묶여 있는 사정은 비교적 객관적인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남한의 담론에서 남북 비교는 순수성 대 비순수성, 비정치성 대 정치성의 틀로 해석되며, 북한의 담론에서는 반동성 대 진보성, 퇴폐성 대 인민성의 구도로 해석된다. 남북 사이에 설정된 이분법적 대립은 가치적 이분법으로 상대를 배제하기 위한 언어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

이상의 결과로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에 대한 이해 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타자를 통한 자기 정당화 논리로 변질된다. 따라서 통일연구는 분단과 사회 구성원의 삶이 맺는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다수의 사람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탈분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연구의 패러다

-
- 3) 이 틀에서 북한은 어떤 ‘본질’을 가진 대상으로 재현된다. 따라서 1950년대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 사이에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망각된다. 북한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심상은 고정되어 있다.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고정된 본질의 발현상의 차이로만 해석된다.
 - 4)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학’은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고정화시키고 단순한 이해 방식을 고정하는 데 제한적이다. 전효관, “남북한 정치담론 비교연구 :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 전략을 중심으로”(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319~330쪽.

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차원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분석적 차원에 한정할 경우 패러다임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초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연구가 텍스트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하여 텍스트 분석의 차원을 변경시켜 볼 필요가 있다. 담론 분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왜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가’에 주목한다. 담론 분석에 따르면 텍스트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는 현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가 관통하고 있는 자료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경우 텍스트에서 언표화된 ‘위기’라는 규정은 현실의 위기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규정을 통해 특정한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규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질문의 차원을 변경시킴으로써 텍스트 내에서 새로운 분석 차원에 주목할 수 있다.

둘째, 말을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 관계를 전제한다. 말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관계 성격에 따라 굴절된다. 이를테면 ‘문을 열어라’는 명령문과 ‘방이 덥지 않으세요’라는 의문문이 동일한 수행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데 서로 다른 형식의 말이 사용될 수 있고 특정한 형식의 말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즉 말이 수행되는 방식이 독자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말이 산출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말이 행해지는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이 행해지는가’를 분석할 때 텍스트의 내용과 효과가 기술될 수 있다. 나아가 텍스트의 효과는 언어 내의 수사적 장치들을 통해 가동된다. 텍스트가 전제하고 있는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 전략을 이해할 때 텍스트의 의미와 효과의 원천이 분석되고 기술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시각은 텍스트에서 새로운 실증성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분석 차원을 개척한다. 담론 분석의 시각은 말을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현실에 개입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즉 담론 분석은 분석 차원을 변경함으로써 ‘말의 정치학’ 혹은 ‘담론의 문화정치학’을 지향한다.

2. 텍스트와 이데올로기-담론의 문화정치학

담론 분석의 관점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시키면 고전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식사회학 혹은 문학사회학의 방법과 질적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사회학에서 '설명'과 '이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견해는 서로 대립적 전제에 서 있으며 상이한 절차를 이용한다.⁵⁾ 설명과 이해를 텍스트 분석과 관련시키면 설명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를 '외부'에 준거하면서 측정하는 것인 반면, 이해는 '내부'에 준거하면서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설명되어야 하는 사실'인 텍스트는 '설명해 주는 사실'인 컨텍스트의 함수다. 지식사회학이나 문학사회학의 주된 흐름은 작가·배경으로 작품을 설명한다. 작품은 작가의 인구학적 변수, 나아가 배경이라는 사회적 변인의 함수다. 텍스트는 작가의 지위와 체험, 나아가 집단 의식과 시대 의식의 수동적 결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고전적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 외부가 텍스트를 결정한다.

기존의 텍스트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텍스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다. 텍스트는 사회적 차원의 결과로 수동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 텍스트의 능동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즉 텍스트의 구조와 그 효과를 해명하는 데 미달한다. 둘째로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반영한다. 사회학의 패러다임에서 텍스트는 언어적 차원을 지시하고 컨텍스트는 사회의 규정력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언어는 내용을 전달하는 중립적 도구를 의미하며, 사회는 언어 외적인 사회적 변인들의 결정력을 함축한다. 언어는 발화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순수한 매체라는 관념에 지

5) 설명과 이해를 대립되는 경향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도 존재한다. 골드만은 설명과 이해를 두 가지 다른 준거점을 갖는 하나의 동일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L. Goldman, *Method in Sociology of Literature*, 박영신 외 옮김, 『문학사회학 방법론』(서울: 현상과인식, 1984), 103~105쪽. 그에 따르면, 설명이란 이해와 동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초점을 달리하는 동일한 과정이다. 그는 작품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을 이해로 정의하고 이를 좀더 커다란 구조로 삽입하여 발생과 변형을 보여주는 것을 설명으로 간주한다.

배당하고 있다. 독립적 언어관 혹은 도구적 언어관은 언어 내에 침전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배제하며, 발화자의 자유 의지를 규정하는 언어 질서 혹은 담론 질서를 컨텍스트에서 제외한다. 셋째로 언어의 장에서 실천을 배제한다. 언어는 미리 결정된 것이고, 인간은 이 질서를 학습을 통해 익힌다. 이 관념은 언어를 단수로 사고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언어, 나아가 다양한 언어 실천을 간과하며, 나아가 사회를 담론 실천이 경합하는 장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달리 비판적 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해 왔다. 이데올로기의 문제들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하다.⁶⁾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개념은 의식을 특권화하는 관념론적 문화 분석과 차별적으로 자유 의지의 한계를 지시한다.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자의 한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의식이나 의지의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 혹은 물질성에 접근하려는 지향성을 갖는다. 특히 그람시의 동의를 통한 지배라는 알튀세르 문제들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 : ISA)라는 문제 설정은 상부구조적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맞물려 관념의 지배적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론⁷⁾을 혁신하여 문제 영역을 개방한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은 한 축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문제들을 설정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문제들은 지배의 재생산이 국가 기구와 구별되는 사회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들은 사회적 현실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권력을 사고할 가능성을 연다. 하지만 이 문제들 자체가 구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무엇을 통해 기능하고 효과를 산출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말하자면

6) J. J. Spivak,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W. J. T. Mitchell, e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3), pp.347~352.

7)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크게 상부구조, 허위의식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반영' 혹은 '의식'의 문제들에 얽매어 있다.

이데올로기 분석의 대상이 될 실증성의 공간을 명료화하지는 못한다.

담론의 문제 설정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가 기능하는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억압적 국가장치와 달리 담론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지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담론의 문제들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들과 이질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⁸⁾ 담론의 문제들은 이데올로기 개념에 부착되어 있는 본질론과 토대-상부구조 틀이 제기하는 난점을 직시한다. 하지만 푸코가 상이한 형태의 권력들이 행하는 종속을 역사적 형성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이 종속화(=주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타자의 힘을 포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구성과 물질성에 접근하려는 혁신된 이데올로기의 문제 설정과 유사한 관심을 공유한다. 따라서 문제는 이데올로기라는 용법에 새로운 술어를 정착시키는 것이다.⁹⁾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가 담론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담론은 이데올로기를 매개하여 구체적으로 현존하게 한다. 때문에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구성과 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담론 분석은 텍스트에 침전되어 있는 이해관계들과 언어 전략을 가시화해 말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하는 사회적 힘과 종속화 전략을 드러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담론 분석은 텍스트 자체의 구조를 밝히거나 의미 생산을 텍스트 수준에 한정하여 해명하는 것을 넘어 의미의 정치학에 이르게 되고 이를 좀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 삽입할 수 있다.

8) 담론의 문제 설정은 이데올로기의 문제 설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푸코는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회피한다. 첫째는 이데올로기는 진실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 진실에 반대되는 지식은 모두 이데올로기라고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주체 혹은 주관이라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가 하부구조나 물질성 또는 경제적 결정 요인들에 비해 부차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푸코는 주장한다. M. Foucault, & C. Gordon, ed.,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 미셸 푸코와의 대담』(서울 : 나남, 1991), 151쪽.

9) M. Barrett, *The Politics of Truth : From Marx to Foucault*(Polity Press, 1991), p.168.

3. 북한의 동질적 주체의 형성 과정

1) 정치담론의 원형 형성

식민지 체험은 민족 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자리매김했다. 해방 공간에서 ‘민족적’이란 수식어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해방 후 좌우는 서로 자신을 민족적인 것으로 표상하고 상대를 반민족적 사대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괴뢰라는 규정으로 배제하고자 했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 대립은 탈식민 과제를 이데올로기적 대립축에서 전개함으로써 체제대립이 부과한 규정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분단이라는 규정성은 남북한에서 탈식민 과제를 왜곡했다.

식민 담론은 식민지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하고 이를 타자화해 뉘으로써 지배의 이유를 구성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만남의 주도권 싸움’에서 타자에 대한 정의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식민지에 대한 물질적 투자를 통해 구성된 고문서 연구, 관찰 기록, 조사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은 문명 대 미개, 과학 대 신비, 발전 대 정체, 남성성 대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식민지는 이른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제국주의의 반사적 대립물로 정의된다. 식민 담론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에 문명 대 미개라는 대립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문명화라는 인도적이고 문명사적인 의무감을 덧붙인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규정성은 식민지 대중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마음의 식민지화’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동의 기제를 창출한다.

따라서 탈식민 과제는 문화와 학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식민지에 의해 부과된 규정성을 해체하고 자신의 주변적 정체성을 긍정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탈식민 과제의 추진은 진공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제는 구체적 대립이 현존하고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로 가로질러져 있는 공간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민족적’이라는 동일한 언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민 담론에 대한 투항 정도, 발전의 전망, 주체 형성의 방식 등은 서로 차별적이다.¹⁰⁾ 탈식

민 담론의 편차는 지배 담론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수용 방식의 차이로 개념화할 수 있다. 개별적 사회에서 드러나는 탈식민 전략에 대한 분석은 식민 담론에 대한 변형 정도와 방향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즉 민족적이란 단어에 부가되는 넘어서기 힘든 한계와 그 내에서 전개되는 의미의 편차가 분석에서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단일하고 동질적인 주체의 형성 과정을 북한이 자신에 대한 내부적 규정과 타자에 대한 외부적 규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북한의 주체 형성 방식은 남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한의 경우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의미화와 서구에 대한 긍정적 의미화라는 식민 담론의 규정성을 해체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남한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부재는 선진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후진적인 것에 대한 거부라는 식민 담론의 영향력 하에서 일반화된 사회적 심성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민 담론의 규정을 상대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우선 내적으로 문화정책의 기본문제에 주목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중에 대한 식민지적 규정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1946년 3월에 발표된 20개조 정강을 시발로 사회주의와 민족 문화의 결합 지점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

법학, 철학, 역사학, 언어학, 교육학, 문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인민 정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진정한 과학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인민을 교양하는 사업과 우리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비판적으로 섭취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통하여 전체 인민의 문화수준을 발전시키며 그들을 고상한 애국주의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키는데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까.¹¹⁾

10) 탈식민 전략은 천미적 발전 노선에서 제3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문화혁명 당시의 중국의 세계혁명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이 크다.

11)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137~138쪽.

북한은 초기부터 민족 문화정책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중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신의 재규정 문제에 대해 의식적 노력을 시도한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언표적 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 역사 보존 작업과 편찬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북한 문화정책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 민족 문화'의 확립을 강조하고 대남 비판의 차원에서 전개된 '반동 문화의 청산과 미국식 문화 이입에 대한 반대'로 압축될 수 있다.¹²⁾ 북한은 문화정책의 기본 노선에 따라 선별 수용의 원칙을 견지한다. 민족 문화에 대한 강조는 내용의 측면보다 형식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봉건 사상, 지배계급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 등은 철저히 제거된다. '민족 문화'라는 개념은 민족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라는 대립선상에서 전개되면서 거의 '인민 문화'와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선별의 원칙에서 인민적인 것이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또 민족적이라는 의미관계에서 전통적인 것 자체가 민족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민족적인 것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사회주의라는 규정과 민족적인 것에 대한 규정을 결합하려는 초보적 문제의식을 전개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강조다. 식민 담론이 대중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과한 것에 비해 북한의 정치담론은 언표상으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군중 노선을 강조한다. 북한은 지주적 주체 건설과 관련하여 식민지적 규정인 의존성 대신 대중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북한이 1950년대까지 '사회의 소비에트화'라는 노선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어진 규정성을 상대화하고 재규정의 노력을 진행시킨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적 주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탈식민담론(post-colonial discourse)의 요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주적론을 통해 반제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북한의 저항적 민족주의는 일본과 미국을 '타락한 존재'로 재현하고 민족적 발전을 억압하는 실체로 표상한다. 제국주의 주적론은 북한사회가 기반하

12)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가족윤리·법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4(서울: 통일원, 1992), 283쪽.

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줄기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 ‘현대 제국주의의 괴수’, ‘자주권의 횡포한 교살자’, ‘조선 민족의 철천지 원수’, ‘인권 유린자’, ‘민족 분열의 장본인’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북한의 담론에서 남한정부는 지주-미림의 관계에 있는 괴뢰 정권으로 등장하고 남한사회의 타락상은 미국의 퇴폐적이고 물질적 가치가 오염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의 정치담론의 골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남한 당국의 ‘매국 배족’ 행위라는 틀을 공유한다.

북한의 정치담론은 식민 담론이 어떤 본질을 상징하고 이를 실체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질 실현을 방해하는 외부적 규정성을 상징하고 실체화하는 역담론(counter-discourse)을 생산한다. 국가 담론으로 생산된 역담론은 통합된 자기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른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역담론의 생산은 본질의 실체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식민 담론과 동일한 일종의 본질주의를 공유하지만, 그것이 식민지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 보존과 정체성 창출을 위한 내부 규율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요약하면 북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생산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역담론을 생산한다. 남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식민 세력에 대한 다른 의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를 통한 주체 형성을 모색했다면, 북한은 식민지적 규정에 대한 다른 의미화를 내적으로 창출하고 외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 의미화를 수반하는 탈식민 전략을 의식적으로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담론의 변형 과정

북한의 정치담론은 해방 후 50여 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형을 겪는다. 북한 정치담론의 원형은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서구적 근대화란 식민 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재현하고 사회주의라는 보편적 시각과 주체적 발전이라는 특수적 시각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각각 전쟁 체험과 체제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절대적 주체 형성을 시도한 결과 ‘반제 규율 사회’를 성립시킨다. 이

과정은 전 사회의 주체화 주장에서 입증된다.

북한의 탈식민 의지는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적 담론으로 전개되면서 변질된다. 북한에서 초기의 문화적 주체 건설은 대중 속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지만, 북한이 유일사상화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실종된다. 이 과정은 주체사상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북한이 주창한 주체화는 철학적 체계로 발전하면서 지도 원칙과 행동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산주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자신을 구별하는 상징이 된다. 유일사상화 과정은 이전의 주체화의 노력이 제3세계라는 특수적 조건에서 상황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틀이라는 성격을 벗어나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하나의 사상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주체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절대화하는 이념으로 고착된다.¹³⁾

주체사상은 70년대 이후부터 통치 이념으로 등장한다. 주체사상은 1970년 조선로동당 5차 대회를 거쳐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르고, 1980년 개정 당규약에도 명문화된다. 이 과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에서 주체사상만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 과정으로 발전하면서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화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러한 유일사상화 과정은 시대 규정에서 주체 시대의 규정을 등장시키고 질적인 시기 구분에 근거한 사상체계로 정립됨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 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 사상, 지도 이론, 지도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주체사상의 정교화와 체계화를 김정일이 주도하면서 세습문제와 결부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74년 4월 25일자 『로동신문』의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주체사상의 체계화는 혁명 성격이 부재한 김정일을 후계자로서 등장시키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13)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정당을 합리화하는 조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투쟁의 무기라기보다는 당조직의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한다. L. Althusser, *Die Krise des Marxismus*, 이진경 역음, 『당내에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서울: 새길, 1992), 88~108쪽. 북한의 유일사상화 과정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화의 노력이 유일사상화라는 맥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 모순은 유일사상이 대중의 주체화를 실질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이견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의 기능마저도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은 언표적 수준에서 모든 것의 주체이지만, 유일사상화 과정은 수령은 구상하고 대중은 실행하는 '정치의 분업'을 확립시킨다. 따라서 정치담론은 말과 현실의 간극을 반복적인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으로 봉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구성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계급에서 민족으로 강조점이 변하고 '우리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와 전통적 가치를 동원한다.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적 가치로 규정되지만, 유사한 의미를 갖는 '애국주의'라든지, '진정한' 혹은 '참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애국주의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민족주의와 별다른 것이 없는 의미를 창출한다. 이 같은 민족주의적 담론의 확대는 최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징후적으로 나타난다. 내용적으로는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드러나듯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우리 민족 제일주의' 등을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우리식'의 강조로 나아가는가 하면, 통일이러는 상징을 통해 민족적 과제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북한은 체제 위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봉건적 가치라고 격하했던 가족주의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활용한다.

가정은 기층 생활 단위입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 과정에 맺어지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자매 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 사랑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모 처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¹⁴⁾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14)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정 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16 쪽.

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 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 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함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 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량심을 가진 인간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¹⁵⁾

북한사회가 ‘농성체제’에 들어선 이후 가족 가치의 동원은 현저한 양상이다. 북한은 부모가 잘못을 해도 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은유를 통해 수령에 대한 의리와 신조를 강조한다. 북한은 민족주의와 통일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체제 유지라는 목적과 결합시킨다. 이 과정은 북한의 정치담론이 유일적이고 절대적인 언어로 자리잡으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전통적 윤리를 동원하여 극복하려는 지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체제 유지 논리의 확대는 초기의 탈식민의 문제의식을 변질시키고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관계를 피와 땅의 윤리로 치환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북한의 민족주의가 인종적 성격의 민족주의라는 부정적 요소를 현저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북한 정치담론의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 전략

1) 북한 정치언어의 의사소통 구조

모든 언어 행위는 특정한 의사소통 구조를 전제한다. 의사소통 구조는 언어

15) 앞의 책, 166쪽.

<표 1>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라는 말의 빈도

	1971년 신년사	1981년 신년사	1991년 신년사
전체 줄수	191	186	295
사용 빈도	42	45	69

출전 : 『조선중앙연감』에서 구성

행위의 최종적 결과, 즉 발화의 의미를 확정짓는다. 의사소통 구조는 발화자—수신자 관계로 성립한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발화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해석 사이의 일치를 문제삼는다. 하지만 발화자—수신자의 관계는 의도—해석의 모델로 이해될 수 없는 사회적 차원을 갖는다.¹⁶⁾ 말을 주고받는 공간은 위계적 대립의 공간이다. 따라서 남북한 정치담론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언어가 전제하고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의 용법을 통해 북한의 의사소통 구조가 가지는 특성을 다룬다. 다음은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라는 말의 빈도이다.¹⁷⁾

표에서 보듯이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라는 말의 빈도는 대단히 높다. 북한의 경우 사용빈도가 비교적 일정하고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문맥도 비교적 고정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우리’라는 말은 4.1줄에서 4.6줄에 1회씩의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말의 용법에서도 ‘우리 당’, ‘우리 인민’ 등과 같은 일정 표현이 거듭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빈도만으로는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함의를 추정하기에 미흡하다. 말의 사용 맥락은 단어가 사용되는 전후 맥락에 유의해야 한다.¹⁸⁾ 전후관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16) S. Hall, “Encoding/Decoding” in S. Hall, D. Hobson, A. Lowe & P. Willis, eds., *Culture, Media, Language : Working Papers in Culture Studies 1972~1979* (Huchinson & Co, 1980).

17) <표 1>에 나타난 줄수는 자료를 만든 책에 있는 줄수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표 1>의 줄수는 절대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난점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용 맥락을 추정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기준을 설정한다.

<표 2>는 '격'에 따라 사용 맥락을 구분한 것이다.¹⁹⁾

특이한 것은 북한의 경우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 주격과 소유격의 빈도는 50대54로 1대1.08의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북한의 경우 43대79로 약 1대1.8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²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언어사용이 모든 인민의 소유라는 특징을 강조하는

<표 2>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우리'라는 말의 '격' 분류

	주격	소유격	기타(동격, 목적격)
1971년 신년사	14	16	12
1981년 신년사	11	27	7
1991년 신년사	18	36	15

출전 : 『조선중앙연감』에서 구성

- 18) 구체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 분석에서 전후관계에 유의하는 것은 분석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맥락은 사전 지식의 소유 여부와 분석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해진다. 이 점은 문맥에 대한 실증 분석의 절대적 한계를 구성한다.
- 19) 이 표에서 주격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라는 말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아니더라도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소유격으로 분류한 것은 의미상으로 '우리의 무엇'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다. 마지막 기타로 분류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 '우리 국민' 등의 표현처럼 문법적으로는 소유격, 즉 '우리의 무엇'에 해당하지만 두 단어 사이에 동격의 의미가 강한 경우와 '우리들', '우리에게'와 같은 목적격이나 여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라는 용법 사이에 구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잉여적 특성이 좀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언어사용의 합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
- 20) 남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한 것이다. 전효관, "남북한 정치담론 비교연구: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 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119쪽.

전략적 언어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격 사용 분류는 ‘우리’라는 말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추론할 가능성을 연다. 주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나는 ~생각합니다’의 형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의 형식으로 대체한 것이다.²¹⁾ 이 경우 화자는 ‘제안’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언’하는 주체다. 논리적 수준에서 제안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언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청자는 단언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우리의 목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표현법은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속할지를 묻는 질문으로 배제를 위한 언어 사용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해야 한다’에서 언표의 주체와 언표 행위의 주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장 형식 속에서 말하는 주체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의견을 진술하지 않지만 의견을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말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의사소통에서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사라짐으로써 행해진 말만 남는다. ‘누구의 말’로 귀속되지 않는 말은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과를 갖는다.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의 무엇’이라는 관계를 설정한다.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용법은 논리적 차원에서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 경우는 ‘우리의 생존과 안전’과 같은 사용법이고, 다른 한 경우는 ‘우리 당’과 같은 사용법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중의 생존과 안전’을 대체하는 용법이라면, 후자는 수사법상 대표 효과를 유발하는 환유(metonymy)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누구의 무엇’에서 ‘누구’를 통칭으로 바꿈으로써 소유 주체를 어법상으로 객관화하지 않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대상을 보편화하는 수사 전략과 공동의 소유라는 암시적 효과를 결합시킨 것이다. 전자가 화자와 청자를 묶는 소유 주체를

21) 북한의 정치언어에서 ‘나’라는 인칭 표현이 명시적인 경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신년사의 경우 ‘나는 ~에게 축하를 드린다’와 같은 의례적 표현으로만 등장한다. 단, 특정한 맥락 속에서 김일성 개인을 함축하는 표현은 드물지 않다.

환기시킨다면, 후자는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를 대체함으로써 극단적인 대표 효과를 발생시킨다. 두 가지 용법은 공통적으로 누구의 대상인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두의 소유라는 환상을 강화한다. 즉 말을 통한 현실의 구성,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가공 효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환유 표현의 남용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대상을 망각하게 하여 다른 대상을 사고할 가능성을 마비시킨다. 그 결과 모두의 소유인 단일 대상만이 남는다.

기타로 분류된 것 중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동격적 표현이 많다. 동격 표현은 생략을 해도 전혀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반복 표현, 다시 말하면 잉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잉여 표현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잉여 표현의 기능은 표현 효과 혹은 수사 효과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²²⁾ 특정 대상과 ‘우리’라는 잉여 표현을 결합시키는 것은 주체-지시 대상의 관계 차원에서 독특한 효과를 갖는다. 화자가 대상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거리를 전제한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 화자는 말의 대상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라는 용법은 대상과의 거리를 말소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즉 이 표현법은 객체를 지칭하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객체로 분리하지 않으려는 지향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표현법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구분을 완화시키는 표현 효과를 낳는다.

내용적으로 ‘우리’라는 말은 나, 당, 민족/국가의 세 범주를 대체하는 용법이다. 이 경우 의미의 중첩이 상당 정도에 이른다.²³⁾ 이는 ‘우리’라는 용법의 의미상으로 무엇을 대체했는지조차 불분명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나아가 ‘우리’라는 말은 특정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맥락도 있다. 이 경우 ‘우리’라는 말의 과잉 사용은 체제대립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 맥락에서는 우리

22) 모든 담론은 표현 효과를 지향한다. 하지만 각 영역의 담론 중에서 정치담론의 목적이 표현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문학 담론이 표현 효과의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 학술 담론은 지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정치담론은 실득 효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3) 북한의 경우 대부분 내개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정부/당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김일성의 말이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당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한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분류는 실질적으로 매우 자의적이기 쉽다.

(we)-너희(they)의 구분이 전제되고, 이 구분은 실질적으로 대화 상대와 투쟁 상대의 구분을 함축한다. 즉 우리의 사용법이 체제대립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한 상대는 투쟁 상대로 동일시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공통적으로 말의 주체를 정확히 명기하는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우리’라는 말의 과잉 사용은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지 않고 화자와 청자가 동일 집단임을 재확인시키는 표현법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기본적 관계 자체를 말소시킨다.

2) 북한 정치언어의 전략

유일사상화 과정은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표현된다. 북한의 신년사는 반드시 신년 축하 인사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다” 혹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전국 동포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낸다”로 신년사를 시작하는 것이 통례적이다. 말하자면 1956년의 신년사를 예외로 하면 북한의 신년사는 ‘나는 ~을 대표하여 ~들에게’나 ‘나는 ~의 이름으로 ~들에게’의 구조로 시작되는 것이 통례적이다. 하지만 1976년 신년사부터는 ‘나는 ~들에게’의 구조로 변화한다. 즉 ‘대표하여’와 ‘이름으로’가 생략됨으로써 ‘나는 절대적 지위로 격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김일성 수상’이나 ‘김일성 동지’가 ‘위대한 수령’이라는 관용구로 변화하는 것과도 상응한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보이는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는 다소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담론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지만, 화자와 청자가 구분되는 제한된 경우에서도 매우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인 수준에서 ① 내가(개인)-당신에게(개인), ② 내가(개인)-당신들에게(집단), ③ 우리가(집단)-당신에게(개인), ④ 우리가(집단)-당신들에게(집단)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에서 북한의 경우는 ②유형에 속한다. 자유주의 정치담론은 통상 ③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담론은 화자에게 집단으로서의 권위

를 부여하고 청자를 개인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로 나타난다.²⁴⁾ 이에 비해 북한의 정치담론이 보이는 정반대의 구조는 화자가 개인적 권위²⁵⁾로 등장하고 청자에게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한 청자와 화자의 관계는 가족적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언어 용법에서 ‘아버이 수령’은 부와 모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자기완결적인, 말하자면 일체의 사회적 권위의 원천인 절대적 존재를 상징한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공적 담론의 주체이고 어머니가 보살핌의 주체라는 점은 수령의 이미지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아버지 수령은 부성으로서의 자질인 자애로움, 인덕 등과 모성으로서의 자질인 보살핌, 희생, 헌신 등의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수령과 인민 사이의 의존관계를 가족 윤리의 차원으로 상승시킨다. 최근 들어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가족적 비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족적 비유는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인민 생활을 책임지는 호주로서의 사회주의 정권, 생명의 모체인 수령, 육친적 사랑, 수령의 은덕, 당과 대중의 혈맥적 관계, 효성동이 등의 용법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가족적 비유의 결과 사회 내에 가족적 관계, 나아가 가부장적 관계²⁶⁾가 설정된다. 사회는 가족의 확대로 규정되는 유기체와 유사한 공동운명체로 개념화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역할에 상응하는 수령(목적), 어머니 역할에 상응하는 당(수단), 아이의 역할에 상응하는 대중(결과)이라는 은유가 성립한다. 은유란 기본적으로 비동일적인 것을 동일화하는 수사적 전략이라는

24) O. Reboul,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서울: 역사비평사, 1994), 94~106쪽.

25)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수령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의미한다. “인민 대중이 집단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의 중심으로서의 수령과 당도 다 집단을 대표합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정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12쪽.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보이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는 ④유형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26) 북한의 가부장적 관계 설정은 가족적 관계와 성적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되어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가부장은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존재로 의미화되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는다.

점에서 사회의 단위들에 대한 부가의미(connotation)의 부작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언어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유기체적 논리에서 수령과 대중의 관계는 뇌수와 손발의 관계, 부모와 어린이의 관계로 등치된다. 화용론(pragmatics)의 견지에서 보면 부모와 어린이 사이에서 행해지는 대화의 특성은 단순하고 교훈적이거나 지시적인 것이 주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수령의 문풍 따라 배우기 운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문풍의 '통속성'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담론에서는 주체가 당 혹은 국가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는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키고 지시주체와 수행주체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한다'는 문장은 인민이 말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말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당이라는 점에서 발화 주체와 문법적 주체가 구분되는 언어사용법을 보여준다. 언어적 차원에서 '나는 잠들었다'라는 말이 불가능한 이유는 잠든 주체가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한다'에서 말하는 주체와 행하는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은 말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언어적 형식 내에서 말하는 주체로 내세우는 언어적 수사의 예를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중의 행위는 당의 행위로 전치되어 나타난다. 북한의 정치담론에는 모든 사회적 행위의 구상자가 당으로 암시화되는 언어사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여성들의 부엌일을 밀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 가공 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식물 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 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 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²⁷⁾

27) 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서울 : 돌베개, 1988), 300쪽 ;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밀어주고, 발전시키고, 조직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당이라는 점이고, 대중은 수혜자로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북한의 표현을 빌리면, 어머니 당은 사람들의 사회정치 생활과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 결과 당과 대중 사이의 관계는 수혜적 관계로 설정되고, 그 사이에는 은(恩)과 보은(報恩)이라는 전통적 관계가 합리화된다. 지배-피지배 관계는 지도-피지도 관계, 나아가 교육자-피교육자의 관계 혹은 후견자-피후견자의 관계로 대체되고, 지도자는 대중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후견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 언어사용의 효과는 대중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갖고 행위하는 주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중이 하는 사회적 행위의 성공 여부는 교육의 성공 여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성과 보고와 과제를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봐도 분명하다. 대중은 실질적인 행위의 주체이지만 모든 성과는 구상자의 노력으로 수렴된다. 항상 “우리 당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우리 당정책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해진다. 이와 같이 달성된 모든 성과가 당정책의 올바른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해지는 한편, 실패한 과제는 당노선의 현실적인 관철을 책임진 관료들의 영도방법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맥락에서만 이야기된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결합이 언급되는 것은 1956년 신년사가 처음인데, 결합은 당노선의 올바른과 정당성과 대비적으로 지적되면서 언급된다. “당노선은 올바르지만 시행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노선을 숙지하고 영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성공은 당정책의 올바른과 연관되고 실패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계기로 위치 지워진다.

북한의 정치담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모든 사태의 변화가 고정된 틀 내에서 해석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선과 악이 확연히 구분되어 그 사이에 어떤 애매한 유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대표적인 악으로 규정되는 것이 남한의 정권과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남한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항하는 투쟁이 필연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 남한의 투쟁은 대단히 합축적인 방식으로 언어화된다. 남한에서 실질적인 투쟁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진다.

“남조선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각성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파쑈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싸우고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반파쑈 민주화 투쟁을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투쟁이 없는 시기에는 미래형을 사용하거나 탄압의 가혹성이 강조되거나 과거의 역사를 암시화하면서 형용적 표현을 사용하는 식으로 언표화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래형으로 진술하는 사용법인데, 이러한 언급은 투쟁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나타나는 사실 진술적인 언표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1961년 신년사는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리승만 괴뢰 정부를 전복하였으며 조선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새생활과 새제도를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진다. 이는 언어의 함축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고정된 악과 이에 대응한 투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언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적 수사는 담론의 이야기 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의 정치담론이 보여주는 이야기 구조는 영웅적 서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적의 책동하고 이를 분쇄하는 식의 이야기’²⁸⁾ 구조를 갖는다. 이 같은 서사 구조는 적의 위기 조성파 영웅에 의한 돌파라는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 영웅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모든 상황의 변화는 이 구조의 틀 내에서 조정된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유화정책은 반드시 ‘교활하다’는 수식어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 언어화는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평화공존을 정책화한 닉슨은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고 교활한 놈’으로 말해진다. 주적은 근본적으로 고정된 대상이며, 그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적으로만 의미화된다. 대중은 이러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적과의 환상적인 투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적 언어사용은 북한이 탈식민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문화어 정책의 성과를 무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화어 정책의 합리적 핵심은 언어와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목적의식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28) 강조는 인용자.

대중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언어를 발굴하고, 이를 가지고 이전의 역사성에서 비롯된 타 언어의 흔적들을 지워 가는 운동으로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²⁹⁾ 하지만 북한의 언어정책은 유일사상화 과정에서 단일하고 절대적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전문가의 작업으로 전환되는 단계를 거친다. 문화어 정책은 '수령님을 섬기는 언어레절'이라든지 도식적 표현 등의 급증으로 귀결되고 만다. 즉 언어에 대한 단일 규범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김일성의 문풍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운동으로 정착되고 만다.

정치담론에서 언어사용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사회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일반적 과정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한의 유일사상적 언어의 형성은 담론의 형성과 해석의 문제가 '개인화'되면서 그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성을 갖는 반대의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담론의 의미화 과정에서 해석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변화는 정책판단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변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도자의 정책판단에 따라 유일적 언어 내에서 진행되는 의미의 치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유일사상적 언어라는 기본 구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에 의해 의미화의 변화가 포착될 경우 일정한 모순과 대안적 사고를 허용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의미의 변화는 명시화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절에서 주목할 것은 1980년 이후 나타나는 의미화의 변화와 새로운 용어들의 등장이라는 현상이다.³⁰⁾ 이 시기는 계급에서 민족으로 강조점이 변하고

29) 이에 반해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과 국어순화운동은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정치의 상관성에 대해 침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은 한글 전용을 지지하고 언론 권력은 국한문 혼용을 지지하는 논쟁을 통해서 표면화된 바 있다. 한글학회가 중심이 된 표준어 정책과 국어순화운동은 대중의 언어사용 방식의 다양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국가권력의 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고길섭,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서울: 토담, 1995), 261~262쪽.

30) 물론 그 이전에도 의미화의 변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체화가 시작되는 이후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사용법

이른바 ‘우리식’이 강조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다음은 민족주의에 대한 초기와 후기의 의미화 연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의 의미연쇄	최근의 의미연쇄
민족주의=과거=죽음=(-)	민족주의=주체=(죽음)=(+)
국제주의=미래=삶=(+)	국제주의=반주체=환상=(-)

이 도식은 민족적 가치에 대한 의미작용에 주체라는 의미가 개입하면서 초래되는 의미화의 반전을 보여준다. 민족주의는 부정적 의미화에서 주체라는 의미를 부가하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삭제시킴으로써 긍정적 의미화로 전환된다. 초기에 민족주의와 대립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규정되었던 국제주의는 미래라는 의미화에 환상이라는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의미 연쇄의 변화는 사전적으로는 명시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국제주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민족주의는 일정한 유보 조건을 달고서만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족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애국주의라든지, 수식어를 동반하는 ‘진정한’ 혹은 ‘참다운’ 애국주의 등의 용법을 통해 민족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의미로 나타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되는 의미의 변화 양상은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사설집인 『근로자』에는 남북한 관계를 다룬 글이 1960년대에 23편, 1970년대에 25편, 1980년대 이후에 24편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의 제목에서 ‘남조선혁명’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14회, 1970년대에 13회가 사용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선차적 문제’라는 식으로 민족 통일과 완전 통일을 구분하는 사용법이 1980년

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역사상 처음으로’라든지 ‘발전풍부화’ 등의 용어는 독창성과 계승성이라는 양자의 요구를 언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1980년 이후의 변화가 좀더 극적이고 향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뿐이다.

대에 들어서 소멸되고 민족적 대단결, 민족적 이념 등의 용어가 전면화되면서 완전연방제의 함의를 갖는 내용들이 부각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정치담론에는 이전과는 의미에 있어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적 미감’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김정일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적 미감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직 명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인정과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맥락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변화와 동시에 최근 북한의 문헌에서 ‘세계적 수준’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강조는 별반 주목할 언급이 아닌 듯하지만 주체적 발전의 위기라는 맥락과 관련시켜 보면 일정한 정책의 변경을 예고한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물론 경제와 일상의 영역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상과 정체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사상과 정체성 영역에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윤리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담론상의 이율배반적 언어사용이라는 현상은 ‘현대적 미감’에 대한 강조와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 사이의 간극으로 나타나고, ‘세계적 수준’에 대한 강조와 ‘전통적 윤리’의 활용이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가시화된다. 문제는 북한이 초기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모순적 관계를 주체적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통합했듯이,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 대한 재접합에 다시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재접합에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이 극도의 사회 위기 속에서 사회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상업 인구의 증대와 비공식적 영역의 확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³¹⁾

북한의 유일사상화 과정은 대중을 주체로 내세워 새로운 발전의 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탈식민의 문제의식을 왜곡했다.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탈식민의

31) 최근 북한 헌법에서 시장적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현실에서 진행된 사회변화를 일정한 수준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계획 경제에 포괄되는 범위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제의식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만 흔적을 지니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체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탈식민의 과제와 관련되어 새로운 정치적·문화적 주체를 건설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국가에 의한 말의 독점과 이데올로기적 언어 사용으로 인해 좌초했다고 할 수 있다. 체제 통합이라는 제 의식에서 전개되는 북한의 민족대단결이나 통일 지상주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언어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북한에서 진행된 탈식민 노력은 거대한 문화적 실험이었고,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그들의 문제의식 전체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유일사상적 언어사용의 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비판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유일사상적 언어의 한계

기본적으로 정치언어는 공적 언어(official language)³²⁾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언어 용법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정치언어가 근본적으로 대중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공적 언어를 통제할 대항적 가능성인데, 이는 개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언어의 가능성과 맞닿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존재하는 자율적 영역 혹은 다른 차별적인 언어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정치담론 상에는 자율적 언어의 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전략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으리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당의 공식적인 결정과 다른 생각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32) 공적 언어란 형식적 언어 혹은 사적 언어와 대비될 수 있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하면 공적 언어는 도그마적인 언어사용이 일반화되는 특성을 갖는다면, 이와 대비되는 형식적 언어는 타당성 검토를 허용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 Bernstein, *Social Class, Language, and Socialization from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 a Sociology of Language*(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0).

의미화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한 과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과업이 나온다느니 뭐니 하면서 불평을 한다고 하는데 동무들은 그런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전은 가장 부정적인 것의 표현으로 제시된다. ‘당의 사상에 배반되는 온갖 불순한 사상들은 결국 부르주아 사상의 각이한 표현’이며,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인 수정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사용이 일반화되면 이전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좀더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의 언어사용을 봉쇄하는 경우는 용법뿐만 아니라 의미화 과정에서도 작동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미를 양극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령에 대한 극진한 수식어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의미를 강화시키는 단어 사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종파쟁이’, ‘종파오물’, ‘인간 백정’, ‘파쇼교형리’, ‘공중비적’, ‘반동 군사 강패’ 등의 단어는 의미를 양극에 배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미의 양극화는 정치담론 수준에서 특정한 의미작용과 관련된 구분을 성립시킨다. 또한 북한의 정치담론에서는 특정한 특성에 대한 구분과 극적인 이분법이 작용한다. 북한에서 모성과 여성성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의 의미화를 수반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 인내의 의미화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는데 반해, 여성성은 권리라는 의미화를 수반하면서 집단주의적 생활에 부정적인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 같은 평가의 극단성은 동일 인물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과거 저명한 정치활동가였던 김구 선생”이 연석회의 이후의 평가라면, “미국경찰들의 공공연한 엄호 밑에서 김구, 리승만 등 매국적들의 테러단”이나 “제아무리 뻔뻔스러운 김구” 등은 그 이전의 평가다. 이는 단일한 의미화를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의미화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토론을 종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개인성의 억압은 집단성과의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과 집단의 이분법은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의 대비로 나타난다. 이 양자는 유한성 대 무한성, 자유와 평등 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육친적 사랑 대 동지적 사랑, 개인적 이익 대 인민 대중의 이익, 개인이기주의 대 집단주의, 실용적 방법 대 혁명적 방법 등의 계열로 의미화된다. 여기서 개인성은 집단적 가치의 부정으로서 의미화된다. “혁명은 어디까지나 집단인 인민대

중을 위한 사업이지 그 어느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개인과 전체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개인=권리’의 의미화를 억제하고 ‘개인=전체의 단위’라는 의미화를 강조하는 전략적 사용법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주의란 ‘사람을 혁명화하는 데서 주되는 장애물’일 뿐이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집단성을 정당화하는 것 자체는 가족적 윤리 혹은 전통적 윤리의 원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회는 가정 같아야 하며 전통적인 가족 윤리인 효가 수렁에 대한 윤리로 등장하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매개로 하는 가족 윤리의 국가 윤리화는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모든 비판을 유보할 것과 무조건적인 충성과 효도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주체화를 통한 새로운 주체 건설의 과제는 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권리와 자율적 말의 형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5. 맺음말

통일의 과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확충하는 문제다. 이러한 과제는 대중 혹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권위적 정치언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언어를 소통시키는 과제로 집약된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언어는 언어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과제 설정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 심화라는 현실 진단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 설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질화’ 담론은 ‘같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당위성만을 생산한다. 나아가 특정 사회를 이질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재현하면서 순수한 것 대 오염된 것이라는 이분법을 등장시켜 양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구상의 과제를 사고에서 배제시킨다.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시민사회 내에서 자율적 말을 되찾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남과 북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일반적으로 재단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반복 이데올로기의 지형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대립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주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미루어진 과제를 긍정하는 것이다.

분단의 구조는 우리와 적의 구분을 필연화함으로써 언어의 극단적 사용을 활성화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분단 언어의 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분단 언어란 남과 북의 체제와 관련된 특수 어휘와 언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 언어는 이분법적인 언어, 나아가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 언어라는 특성을 갖는다. 분단은 양극적 의미의 언어와 권위적 언어를 양산하고 다시 이러한 언어는 분단체제에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통일 노력이란 분단 언어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언어 용법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구, “우리의 반쪽인 북한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서울 : 을유문화사, 1990).
- 고길섭,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서울 : 토담, 1995).
- 구본태, “북한연구를 위한 접근론 서설”, 『북한학보』 제5집(1981).
- 권혁범, “한국의 반공주의-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남과 북 : 문화통합』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저작집』 각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정 동지의 문헌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동아일보사 편, 『안보 · 통일문제 기본자료집』.
- 『로동신문』, 1974년 4월 25일.

-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가족윤리·법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 4(서울: 통일원, 1992).
- 양성철, “학문내적 통일 논의 총점검 및 새 이론 방향 구상”, 양성철 엮음,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이교덕,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체”(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효관, “남북한 정치담론 비교연구: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 전략을 중심으로”(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조선중앙연감』 각권.
- 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 Althusser, L., *Die Krise des Marxismus*, 이진경 엮음, 『당내에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서울: 새길, 1992).
- Ashcroft, B., G. Griffiths, and H. Tiffin, eds.,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5).
- Barrett, M., *The Politics of Truth: From Marx to Foucault*(Polity Press, 1991).
- Bernstein, B., *Social Class, Language, and Socialization from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and Kagan Paul, 1970).
-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Longman, 1989).
- Foucault, M. & C. Gordon, eds.,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서울: 나남, 1991).
- Goldman, L., *Method in Sociology of Literature*, 박영신 외 옮김, 『문학사회학 방법론』(서울: 현상과인식, 1984).
- Hall, S., “Encoding/Decoding” in S. Hall, D. Hobson, A. Lowe & P. Willis, ed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e Studies 1972~1979* (Huchinson & Co, 1980).
- Reboul, O.,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서울: 역사비평사, 1994).
- Said, E., *Orientalism*(London: Routledge, 1978).
- Spivak, J. J.,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W. J. T. Michell, e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3).

(Abstract)

The Communicative Structure and Linguistic Strategy of North Korean Political Discourse : A Cultural-Political Approach to Political Language

Jun Hyo Gwan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of Yonsei University, Sociolog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unicative structure and linguistic strategies in North Korea's political discourse. It analyzes political texts of North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discourse and its discursive effects. The discourse analysis used in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anguage is the vehicle for constructing reality. Therefore, analysis of raw materials enables us to illuminate the strategies and techniques of rhetoric employed in the texts. In other words, the "signification" and encoding of language can clarify dynamics of "politics of meaning."

This study shows that North Korea's political discourse is composed of particular elements that prevent the formation of alternative discourse and interaction. North Korean politics nullifies the reciprocity of communication by completely separating the speaker from the listener. In the context of authoritarian politics, language functions as a tool for giving orders as exemplified in the following slogan : "Whatever the party decides, we will carry out." In addition, North Korea's political discourse has several other characteristics preventing the formation of any new discourse that deviates from the dominant discourse. It usually polarizes the images between "good" and "evil." The dominant discourse continues to create an imaginary enemy which challenges it. Moreover, North Korea's political discourse does not

allow any room for individual freedom. Hence, within the familistic metaphors the obed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followers is taken for granted.

This unilateral characteristic of political discourse restrict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North Korea. The linguistic situation of North Korea brings about difficulties in integrating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It calls for deconstructing a dominant political discourse in a way that could promote the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